

강화게스트하우스 배꽃집

bau



소개글

강화게스트하우스 배꽃집은

지역주민이 직접 살면서 운영하는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로,

사람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여행자의 입장으로 사람을 만나고

여행 이야기, 사는 이야기, 강화도 이야기로

만나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목차

| | |
|----------------------|----|
| • 강화 게스트하우스 '배꽃집' | 4 |
| • 강화게스트하우스 배꽃집 | 6 |
| • 봄을 맞은 게스트하우스 배꽃집 | 7 |
| • 봄이 들어간 냉이 된장국 | 9 |
| • 좋은 인연, 효진씨 | 11 |
| • 2013년 2월18일 요즘 이야기 | 14 |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5 |
| • 2013년 2월7일 요즘 이야기 | 16 |
| • 별립산 | 17 |

저희집에 나들길 손님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였어요.

강화도는 발 닿는 곳 어디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들길 코스와는 거리가 있으나,

혼자서, 또는친구 두서명과 모처럼 한적한 길을 걸으며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추천하곳 싶은 길,

넓은 하점벌의 목가적인 풍경길,

석양이 아름다운 수로길,

석모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바닷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창후리 포구까지는 두시간 남짓이면 도착합니다. 팔닥팔닥 뛰는 것 잡은 싱싱한 회와 소주 한잔은 마음 휴식의 정점이 되겠지요?

특히 하점벌은 해마다 하점면사무소에서 '벌판걷기'를 개최할 정도로 잘 정비된 아름다운 길입니다.

저희집은 도미토리로 되어있어요.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 조용하고 한가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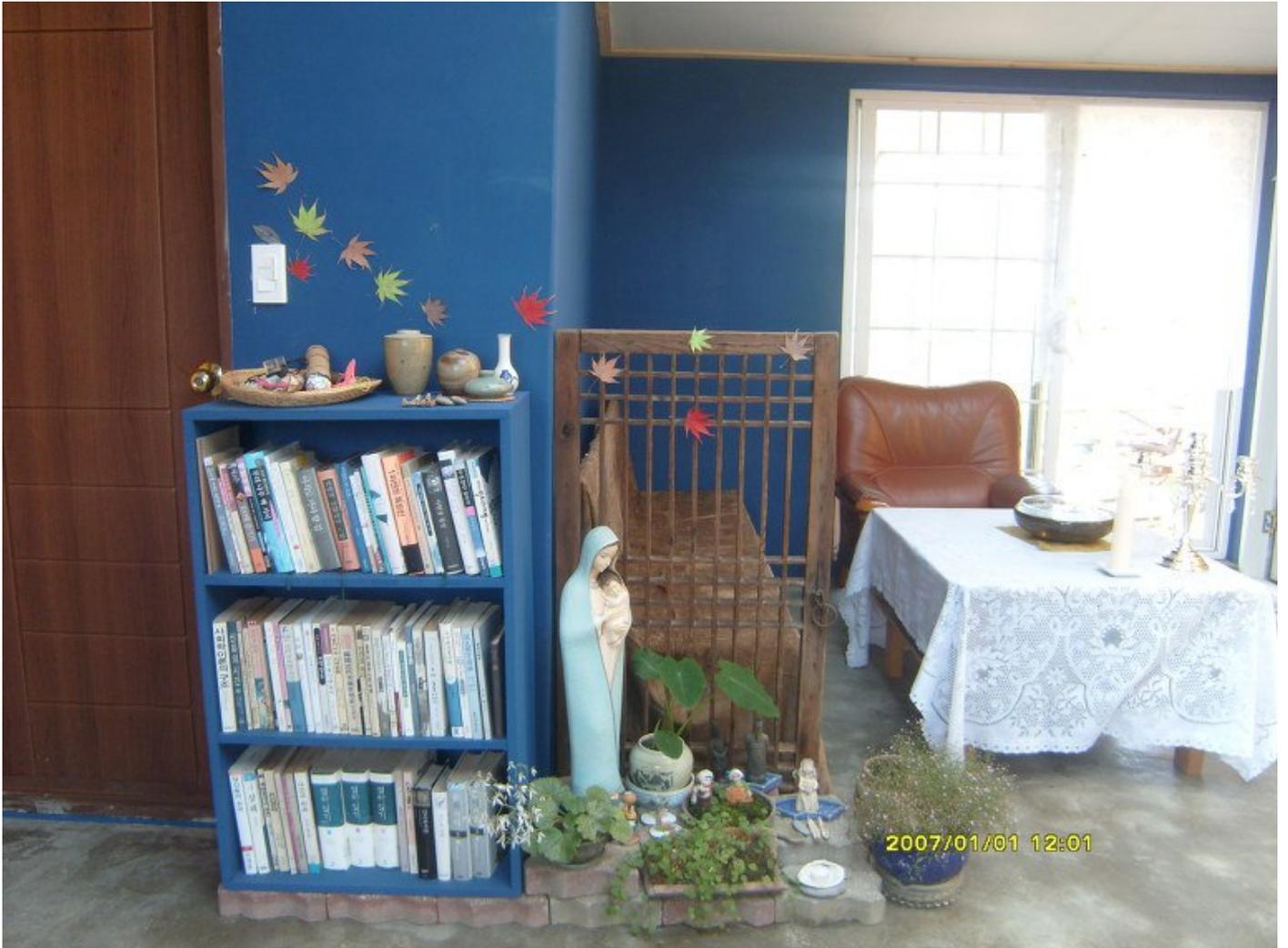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강화 버스터미널에서 30번, 32번 버스 이용(강화군내 버스 시간표 참조)

주변 볼거리: 강화고인돌, 강화역사관,백련사,무애원,하점면 석조여래입상,하점면 오층석탑,창후포구

등반 코스: 봉천산,고려산,별립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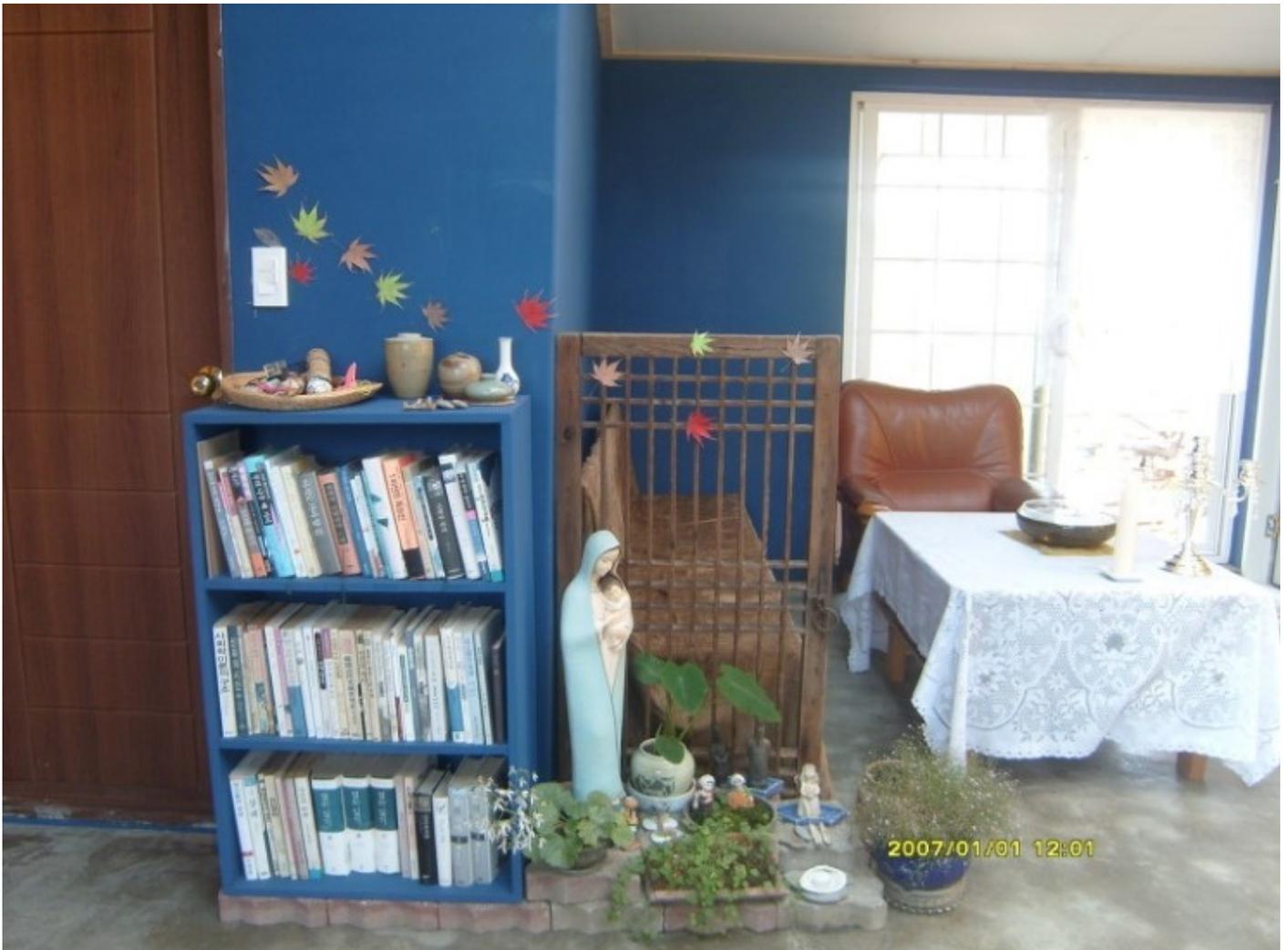
연락처: 010-4032-0558 (보리)

숙박비: 1인 2만 5천원 입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Pear/>



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강화 게스트하우스 배꽃집' 소식을 아실 수 있어요.



창가에 나란히 놓인 꽃들이 미소를 번지게 한다.

예쁘게 핀 꽃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들이 왜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것들은,
나쁜 마음, 악한 것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절대로.



천정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참 따사롭다.
한가롭게 앉아서 봄을 온 몸으로 맞는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이 시간이... .. 행복하다.



2월도 중순이 지난데도 아직 밭에는 흰눈이 덮여있다. 이겨울의 꼬리가 꽤 길모양이다.

밭에 눈이 덮여 있어도 시골생활 10년이 넘고보니 입맛과 눈이 먼저 봄을 찾는다.

요즘은 꽃이 그림고 여러여리하고 향긋한 봄내가 가득한 냉이며 썩이 먹고 싶다.

옛날 이야기에 죽을 병에 걸린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딸기를 찾아 심심산골을 헤매는 효자의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비록 이야기 책일망정 아들 고생 생각하지 못하고 주책을 떠는 어머니가 알뜰게 생각되었는데 냉이와 썩이 몹시도 그리운 지금은 그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머리가 아닌 감각으로 기억된 것들은 몸에 낙인처럼 찍히게 되나 보다. 그래서 때가 되거나 사소한 기억 한자락에도 눈물로, 때로는 미각으로 되살아 나는가보다 싶다.

바람이 잔잔해진 틈을 타서 땅이 말랑해졌으면 냉이라도 한 줌 캐볼 요량으로 밭으로 나갔다.

냉이는 봄을 대표하는 나물이지만 사실은 지난 여름에 떨어진 씨가 자라 겨울을 넘긴 것을 봄에 캐서 먹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작고 가려진 것들이 저마다의 생존법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을만큼 낮게 땅 자리를 차지한 냉이도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들을 많이, 또 자주 퍼트리러는 방법으로 그 삶을 유지하고 있다.

봄에 자란 냉이는 여름을 지나며 씨앗을 맺고, 그 씨앗이 자라서 다시 가을에 새 씨앗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떨어진 씨앗들이 봄을 열고 새생명을 잉태하며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그리고 긴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고 작은 생명들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며, 내가 시골생활을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눈이 녹은 자리는 땅이 질다. 질척한 흙이 덩어리져서 신발에 붙어 밭이 무겁다. 눈이 녹은 자리에 푸른것들이 보인다. 이맘때는 푸른 색만 봐도 반갑다.

겨울추위를 한껏 받은 냉이잎은 검푸르고 붉은색을 띄고 있다. 밖에서 실컷 놀다가 들어온 아이의 언 뺨을 보는 것 같다.

말랑해진 자리에 냉이 머리가 1미리쯤 올라와 있다. 손으로 잡아 뽑았더니 수욱 뽑힌다.

냉이 뿌리는 짧고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이런 냉이가 맛있다.

생각지도 못하게 쉽게 뽑히는 냉이에 신이나서 어찌면 냉이회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눈을 부릅뜨고 땅을 살피고 다녔다.

하지만, 역시나 너무 일렀다. 물골이 난 자리만 말랑말랑할뿐 땅 속이 공공 얼어서 칼도 들어가질 않는다. 칼을 넣어 땅을 파봐도 냉이뿌리가 중간에서 잘려버렸다.

공연히 이르게 설쳐서 봄나물까지 망치는가 싶어, 한 주먹 냉이에 만족해야 했다.

된장을 풀고 양파와 감자를 넉넉이 넣어 보글보글 끓이다가 잘게 냉이를 썰어 넣고 한 소끔 더 끓였다. 비록 한 줌 밖에 되지 않는 냉이지만 봄을 통채로 마신 듯 입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한 저녁상이었다.





숙박비에 포함되는 아침식사이다.

푸성귀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제가 직접 텃밭에서 가꾼 유기농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있으나, 푸성귀가 귀한 겨울에는 떡국이나 빵으로 아침을 제공하고 있다.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이현방앗간'에서 만든 떡이다. 맛있는 쌀로 유명한 아끼바리로 만든 순수 100% 강화쌀떡이다. 좋은 떡에 굴로 육수를 만들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게스트들은 반찬하나 남기지 않는 '정성'으로 내게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나는 매번 메뉴를 짜고 또 음식을 만드는 일이 즐겁다.



여행은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 한비아

2월 3째주 강화게스트하우스 배꽃집을 찾아온 효진씨.

친구와 함께 찾아왔다.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는 효진씨의 가방이 제법 묵직해 보였다.

읽지도 않을 책이 한보따리 들었다며 웃는다.

친구를 먼저 보내고 강화길을 걷고 싶다는 효진씨에게

가슴이 탁 트인 하점벌과 망월벌을 지나 창후리 포구까지 가는 코스를 추천해 주었다.

시간도 2시간 내외로 적당하고, 무엇보다도 탁 트인 풍경끝에 나오는 포구의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입도 즐거운 코스라서 즐겨 걷게 되는 길이다.

이 겨울에 창후리 포구에는 싱싱한 송어회와 해물 칼국수가 있다.

칼국수를 파는 식당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위치만 그려주었더니, 잘 도착했다며 '해동식당'이더라며 식당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역시, 눈썰미가 뛰어난 여인이다.

배꽃집에서 강화에 대한 추억이 소복하게 쌓인 여행이 되었길 바란다.

baul | yozm

[Daum블로그]맛있는 여행 - 창후리 칼국수: 맛있는 음식이 있을때 여행의 즐거움은 배가된다.그런측면에서 창후리는 여행지로는 최고다.5월 밴댕이와. 10월 전어, 그리고 12월 한 겨울이 되어서야 탱탱하고 달달한 맛이 제대로인 송어회가 있기 때문이다.모두 강화지역의 특산물로 이..



'매일이 오늘만 같아라'
만족하는 201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bau1 | yozm

[Daum블로그]강화도 갯벌:



bau1 | yozm

[Daum블로그]강화도 갯벌 풍경:







별립산
399m

혼자 떨어져 우뚝 서 있는 뜻을 이름에 담고 있는 별립산.

두어시간이면 왕복할수 있어 부담없이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중간에 만나는 솔숲의 향기가 어찌나 진하던지 몸과 마음이 절로 힐링이 되는듯 절로 가볍고 상쾌했 습니다.

산을 오르며 만나는 산새들과 세월의 풍상을 겪고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소나무를 보는 기쁨이 컸던 산행이었습니다.

호젓한 산길과 정사에서 바라 본 교동과 석모도의 섬,, 그리고 넓게 펼쳐진 하점과 망월의 벌판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산행이었습니다.

강화게스트하우스 배꽃집

블로그

강화배꽃집

<http://blog.daum.net/qorhcwlq>

저자

bau

발행일

2013.09.06 17:08:51

 블로그